

# 나이팅게일과 신앙

홍 신 영

(연세 간호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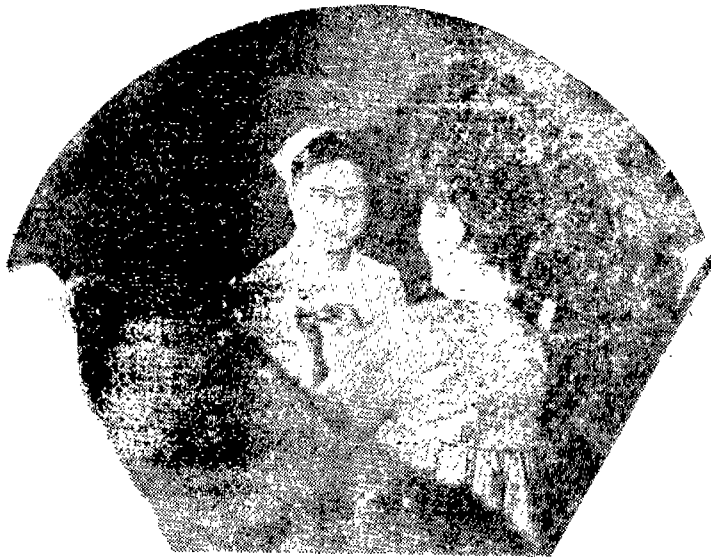
후르렌스 나이팅게일은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며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일생은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병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독하고 슬픔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송두리째 바쳤던 희생과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의 천사, 혹은 등불을 손에 든 귀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Henry Wardsworth Longfellow, 1857)는 산타페로메나(Santa Felomena)라는 시를 써서 깊은 밤에 손에 등불을 들고 부상자들이 누워 있는 병실을 더듬어 지나가는 천사 같은 그의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후르렌스의 업적을 찬양하며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여력까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에게서 보내온 훈장을 위시해서 런던시의 자유시민권을 보내왔으며 노르웨이 적십자회에서 보내온 표창장 등 그 예를 다룰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후르렌스의 공적에 감동하여 무엇이든지 기념되는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평소에

후르렌스가 간호학교를 설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호학교 설립기금을 모금하게 되었고 국제적심자사에서 나이팅게일기장 제도를 만들어 매 2년에 한번씩 간호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간호원에게 나이팅게일기장을 수여했습니다. 시인과 음악가들은 나이팅게일에 대한 시와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했고 가난 여자가기는 후르렌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게 되었으며 어린 아이들 까지도 나이팅게일을 잘 알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처럼 위대한 인물로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력, 환경, 지식일까요? 이런 것들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언니도'가졌던 것이고 그의 부모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가진 이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이들은 이런 사업에 몰바치기는 커녕 이런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후르렌스에게 방해를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떠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후르렌스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곧 세계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힘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는

일찍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후로렌스가 17세 되던 해(1837) 2월 7일 일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써여 있었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라고 나를 부르셨다(God called me to His service) 또 다른 일기장에 “나는 이러한 계시를 내마음속에 인식한 것은 내가 6세 때였다”라고 썼읍니다.

후로렌스는 이렇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인식과 그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아왔다고 보겠읍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동자, 어린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하는 생각으로 항상 마음에 고민을 해왔읍니다.

그의 부모들은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인정많은 후로렌스가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관찰하는 눈도 빠르고 또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큰 걱정을 하며 크리스티라는 가정교사를 채용했읍니다.

후로렌스는 크리스티 선생에게서 여러가지를 배웠는데 그중에서도 후로렌스가 가슴깊이 아로새긴 것은 하느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착한 사마리아인의 선행(강도난난 사람에게 해준 이야기), 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무슨 일이든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이다. 불평하지도 남을 원망해서도 안된다는 성경말씀이었읍니다.

후로렌스는 크리스티 선생의 말씀대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 돌봐주고, 어린이들을 귀여워 해주며 동무해 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나날을 보냈읍니다.

이러한 후로렌스를 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읍니다. 큰딸과 같이 기품있고 상류사회의 귀부인이 되려 하지 않고 하류사람들과 사귀며 그들의 벗이 되려고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읍니다.

영국은 그 당시(17—19세기 전반기) 기계문명에 눈을 뜨게 되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정치 경제면에 영향을 끼쳐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읍니다. 즉,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노예 폐지법이 통과되어 영국영토내에 있는 80만명의 노예가 해방되었고 여성선구자들은 여성참정권 주장운동을 벌였으며 여성제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저술했읍니다. 크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19—1901) 때에는 전형적인 중류계급이상의 가정에서는 여자들에게도 문

학, 예술, 어학 등 교양교육을 시켰읍니다.

이와같은 과도기시대에 나타난 현상은 귀족은 아니더라도 돈을 벌고 지식을 배워서 귀족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기계문명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또한 비싼 임금대신 싼 임금으로 부녀자와 어린이를 고용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거지, 소매치기, 강도가 증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잃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뜻있는 이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읍니다. “럭지 못하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해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토마스 칼라이는 말했읍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후로렌스는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도 언니와는 달리 부유하고 명탄한 생활에 아무 흥미가 없었으며 늘 삶의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신이 자기에게 맡긴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읍니다. 매우 신앙적이어서 사회봉사를 통하여 가장 보람있게 신을 섬길 수 있다고 믿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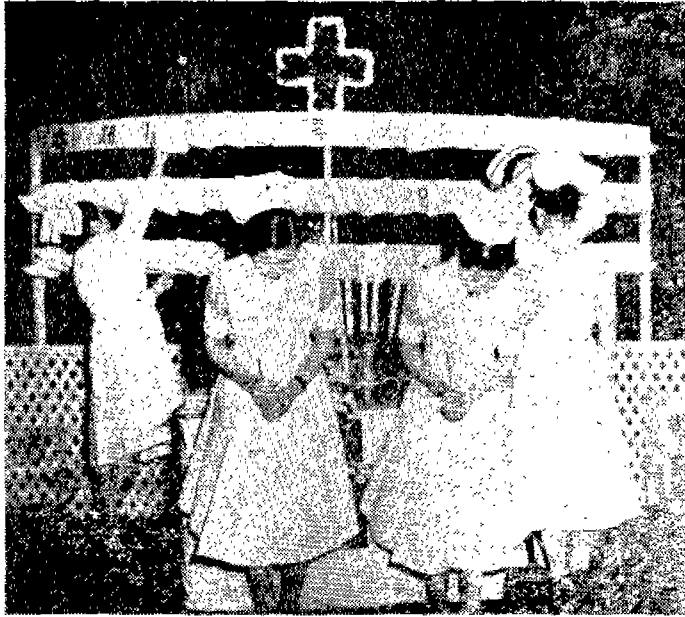
1837년 겨울, 몹시 추위. 병자가 많이 생겼고 부모와 자신도 병들었읍니다. 고열로 앓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했읍니다. “어둠컴컴하고 추운 방에서 담요하나 제대로 덮지 못하고 약도 변변히 쓰지 못하는 불쌍한 병자들을 누가 돌봐 주나?” 하고 걱정하면서 자신의 병보다 타인의 병을 걱정하며 기도했읍니다. “오, 하느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읍니다 그는 분명히 이런 음성을 들었읍니다. “너는 내가 뽑은 사람이다. 내 딸로서 일운 하여라.”

한편 후로렌스의 자란 과정을 참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후로렌스는 지금으로부터 160년전(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후로렌스에서 아버지 윌리엄(William Edward Nightingale)과 어머니 패니(Fanny)의 둘째딸로 태어났읍니다.

후로렌스의 아버지는 영국의 명문출신으로 탁대한 재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고, 그의 어머니는 유명한 정치가요, 노예해방을 부르짖은 William Smith의 딸로서 기품있고 활발하며 문학, 예술, 정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여성이였읍니다. 돈 많고 지위 높은 이 두 내외는 여행을 떠 즐겨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경치 좋은 곳을 택하여 여행을 했으며, 이탈리아에서 2,3년 유하면서 딸들을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큰

딸은 1819년 나폴리에서 낳고 이름을 파세노프 (Parthenope)라고 희랍식으로 지었고 그 이름을 둘째 딸을 낳고 이름을 후르렌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 수단으로는 마차가 가장 진보된 것이었는데 어린 후르렌스는 봄, 가을이면 온 가족과 함께 마차를 타고 구경다니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웠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티허스트(Lea Hurst)에서 지나고, 새해가 되어 친척들을 만나 즐기고 싶을 때에는 런던에 가서 즐기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엠블리(Embley)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한편 후르렌스의 부모는 딸들을 철저히 양육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통과 예의를 매우 존중히 여기는 전형적인 영국부인으로 딸들을 법도있게 양육했고 아버지 역시 높은 이상과 신사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특히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녀를 교육할만한 기관이 별로 없던 때라 딸들의 교육을 아버지가 맡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학, 고전학, 역사 등을 확실히 공부했고 후르렌스는 7세때 프랑스어로 일기를 쓰게끔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자람에 따라 영어, 외국역사, 성경, 영국정치사, 수학 등을 익혔고 희랍어, 라틴어 등을 공부했으며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는 더 익숙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외에 음악(노래와 피아노)과 연극을 익숙히 잘 했고 오페라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집안에서 자란 후르렌스는 성격이 온순하고 아주 조용한 아이였고 언제나 혼자서 책을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고 겸손하며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앞에 나서기를 즐겨하지 않았지만 의지가 굳고 정열적이고 섬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정서적인 은실에서 자란 후르렌스가 간호법을 배우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

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와 언니는 필적 뛰며 집안장신 시키려 한다고 하며 절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달리 효성이 지극한 후르렌스는 어머니가 불려하는 것은 그때도 할 수 없었고 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나는 동안 후르렌스는 아주 약해져서 자주 어지러워 넘어지기도 잘 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여행을 보내면 좀 나을 줄

알고 구라파 각 곳으로 여행을 보냈는데 돌아와서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간호원이 되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병든 자를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깊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자는 가정에 들어앉아 남편을 도와주고 아기를 낳아 기르려 한다는 생각을 하던 때였고 더구나 병원의 간호원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부모를 실망시킨 것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후르렌스의 나이 서른 두살되었을 때 카이저스베르트(Kaiserswerth)로 가서 직원들과 같이 살면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다는 즐거움을 여기와서 저는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이 행동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꼭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네가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하여라’ 하는 이 말씀을”

후르렌스는 일기에 “이처럼 남을 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병든 사람을 간호해주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후르렌스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승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십여년을 두고 졸라대고 일을 안 시켜 준다고 고

민하는 모습을 가졌게 여기던 아버지는 이제 딸의 나이 서른이 넘어 지각이 났으니 뒤를 내주어 일을 하도록 하리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고모씨는 메이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마저 승락하여 후로렌스의 기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후로렌스가 맡은 처음 장소는 영국자선병원의 감독이었습니다.

1854년 3월에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로렌스는 “오—하느님,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이다. 나는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 그들을 구해주고 간호해 줄 의무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여 38명의 간호원을 인솔하고 전지로 향했는데 여기에서의 활약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역활이었습니다.

후로렌스 나이팅게일 자신이 말한 신앙간증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하는 일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커다란 특권입니다. 주님이 다른 여성에게 준 것보다 더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역할할 수 있으며 힘을 기울일 수 있으며 또 「활기 위하여가 아니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주님의 부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언제나 하느님과 같이 연연중에 높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주 산위에나 황야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3. 하느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하느님이 안 계실 것과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병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주여,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는 중태에 놓여있는 환자를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서 또 다시 은밀한 속에 홀로 하느님은 나를 보살피 주신다. 또는 아픈 사람을 보살피 주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지, 병자를 간호함으로써 하느님께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즐겁게 여기며 아침에 일어났는지 생각하여 보자.

4. 간호라는 천직에 있어서만은 만약 여러분이 이 사명의 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5.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일은 「무엇으로 하느님은 우리들(간호원들), 그리고 환자들을 참 그리스도의 교의(敎義)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놓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6. 또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것은(여러분의 기도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또 그 용범을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간호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 벅찬 일인 만큼 이 큰 일을 능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느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1855년 11월 29일은 평생 소원이던 간호학교 기금을 모으기 위해 모임을 가진 날이었는데 이날 후로렌스에게 보낸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내 일생중에 가장 기뻐던 날이다. 후로렌스야! 밤이 깊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배풀어진 이 집회가 얼마나 훌륭했었던가를 네게 알리지 않고는 잠잠수가 없구나 우리들 중에 너처럼 명예로운 탐내지 않는 사람도 없고 너처럼 크나큰 영광을 입은 사람도 없다. 너는 그것이 부끄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기쁘지 말할 수가 없구나. 너도 좀 기뻐해라.”

결론적으로 후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첫째, 하느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의 계시를 받아 그 명령에 복종했고 둘째, 간호사업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즉,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버렸고 어머니와 언니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도 결혼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따른 우리들의 선배요, 우리의 자랑이요, 상징인 후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참간호 실천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